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관심을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 전개

철새의 이동이 시작되는 10월을 맞이하면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1월 시특별방역기간을 앞두고 10월을 농가 홍보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철새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10월부터 방역의 철저를 기하자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회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해 'HPAI 예방대책본부'의 활동을 가동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전국의 양계인 및 회원들에게 HPAI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특히 농장내 유입을 막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확실한 예방책이니 만큼 본회에서는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갈아신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소독 미 실시 농가에서 시가 발생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40-80%)할 예정이므로 이를 적극 홍보하여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언제든지 철새의 분변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HPAI균으로부터 차단방역을 통해 외부로부터 농장내 반입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면 큰 문제없이 금년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고 철새접근을 막기 위한 그물망 설치,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설치류를 없애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농장내 출입인이나 출입차량을 철저히 소독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내로 들어가는 관리인이나 농장주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독 발판을 반드시 준비하고,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율이 떨어지고 폐사계가 증가하는 '의심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도 방역기관이나 정부 또는 협회로 신고하는 것을 잊어서 안된다.

과거 2003/04년과 2006/07년에 발생사례를 볼때 2003년에는 농가들의 차단방역에 대한 의식이 낮았고, 계분 차량 등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던 터라 19개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2006년에는 방역의식이 높아지고 살처분과 방역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두차례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06/07년에 발생되었을 경우 오염지역인 500m이내를 살처분했다고 가정하면 52만마리 정도의 가축만이 살처분되었을 것이지만 이를 3km까지 확대한 결과 280여만마리로 확대되면서 인력은 물론 정부예산이 낭비되었다. 본회에서는 가능하면 발생농장만을 살처분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양계인의 의식수준과 정부의 방역활동을 볼때 살처분 범위축소는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항생제 인증제도에 대한 재인식 필요 산란업계 피해우려 폐지론 대두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양계업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유기축산기술이 낮은 농가의 친환경 축산진입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2/4분기 친환경축산물 현황을 보면 8개축종에서 131개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7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축산물은 50개소, 전환기유기축산물은 3개였다. 축종별로 볼때 산란계가 76개 농장(무항생제 54개, 유기축산물 22개)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육계로 모두 20개 농장(무항생제 11개, 유기 8개, 전환기 1개)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타 축종의 경우 한우는 12개, 육우는 7개, 돼지는 6개, 젓소는 5개가 친환경축산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지역출장소)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기관 34개소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로 최종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료검사와 수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잔류허용기준의 1/10미만이 되었을 때 출하가 가능하다. 물론 사육밀도 등 환경관리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고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우후 죽순격'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산란계 농장 등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란계는 법적으로 산란 전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에 전혀 맞지 않으며, 특히 대부분의 농

장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항생제 덩어리인양 취급될 수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채란 농가들은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조만간정부 및 농관원 등에 정식적인 폐지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명칭도 친환경적인 이름을 바꿀 것을 아울러 요청하고 있다.

양계업계 장기불황 돌입

원종계 업체 대표자 토론회 준비 등 대책마련 부심

양계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황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04년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반사이익이 2년반 가까이 지속되었던 것이 불황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산란계의 경우 사육수수가 여전히 5천7백만수가 유지되면서 줄어들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도 원종계가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장기 불황은 불보듯 뻔 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육계산업 관련업계 간담회를 지난달 초 실시하였으나 육계산업 안정을 위해 업계 전체가 뜻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론에서는 찬성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뚜렷한 방안을 도출시키지는 못하였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어려움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원종계업체 대표자 토론회를 개최기로 합의하고 세부 계획에 대한 조율에 들어가면서 육계산업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원종 4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간의 고객잡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종계 사육수수 증가라는 최악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종계장이 새롭게 신축되는가 하면 육계농장으로 사용되던 시설들이 종계장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정부에서 2005년 축산업 등록 당시 파악했던 종계장 숫자가 250여개였으나 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계데이터베이스 결과 지난 7월 현재 483농가로 집계되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장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양계업계가 최악의 불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는 10월 19-20일 충북괴산 화양계곡에서 전국 양계인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업계에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조만간 원종계업체들의 효율적인 불황 타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